

#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의 상대적 영향력과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민성(金玟成)\*\*

박신희(朴信姬)\*\*\*

##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족, 학교교사, 친구,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가족지나 학교교사지지의 효과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15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94명의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개인적 특성 변인 중 주관적 경제수준만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지지 변인들은 모두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센터교사지지 분석에 포함되었을 때, 학교교사지지의 영향력은 사라졌고, 친구지지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다음에는 센터교사지지, 가족지지 순으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센터교사의 지지와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와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센터교사지지와 학교교사지지와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센터교사지지와 가족지지와와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그 설명력은 미미하였다. 흥미롭게도 가족지지와 센터교사지지가 둘 다 높은 경우에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이 상승하였다. 이는 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지지가 두루 긍정적일 때,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승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부모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 지역아동센터,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지역아동센터교사의 지지, 조절효과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4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생

## I. 서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학습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3)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부모의 역할, 학교공부를 도와주고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의 역할, 부모나 성인들의 관심의 결여로 생기는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자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87% 정도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다<sup>1)</sup>(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3). 저소득층 아동들은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긍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애착의 결여로 인해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박혜신, 200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이러한 배경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이상의 역할은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 문화, 교육적 소외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오봉욱, 2005). 특히, 아동들이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센터 구성원들로부터 느끼게 되는 지지는 가족이나 학교생활에서 결핍되었을 수 있는 지지와 애착을 보완함으로써 아동들이 놓인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질은 아동들의 자존감이나 학교생활적응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지각하는 센터친구나 센터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았다(김선미, 2006). 하정민(2006)은 빈곤아동들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비교하였을 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학교 교사와 또래관계가 더 원만하였고, 센터의 교사와 센터 친구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할수록 학습동기가 더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김현주(2010)의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지각하는 센터교사의 관심과 지원은 학교생활(학교흥미, 학교성적, 학교규칙)의 적응도를 높였고, 학업성적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 특히 센터교사의 지지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경험의 호불호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견문을 넓히며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경험을 연구한 최은희, 손영빈, 김현주(2008)는 지역아동센터 생활 속에서 아동들이 겪는

1)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영세민 통합하여 불안정 취업으로 생활하는 계층을 총괄하여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을 절대빈곤층 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저소득 가정으로 포함시켰다.

부정적인 경험의 상당수는 센터교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교사의 꾸중이나 체벌, 차별적인 행동 등은 아동들이 센터이용을 중단하는 우선적인 이유였다. 반면에 센터교사의 관심어린 태도나 진심어린 칭찬 등은 이용 아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이끌었다(김연정, 2010).

이처럼 센터교사로부터 아동이 지각하는 센터 교사의 지지는 지역아동센터 내의 상호작용의 방식과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센터 교사는 아동을 돌보는 '어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동들은 방과 후부터 저녁식사 이후 시간까지 적어도 3시간에서 6시간 이상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한다. 센터는 아동에게 휴식과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학교학습을 지도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의 돌봄과 학교의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아동센터 교사는 하루의 상당 시간을 아동과 함께 하면서 부모와 학교교사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였다. 아동이 센터 교사로부터 느끼는 지지가 다른 사회적 지지원(가족, 또래, 학교교사)과 비교해 볼 때 그 정도가 어떠한지, 특히 가족이나 학교교사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센터교사의 지지가 가족과 학교교사지지의 결핍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본 연구의 주요한 질문으로 설정하였다. 지역공동체의 유대나 도움이 저소득층 가정의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황혜원(2014)의 연구나 위기 아동들에게 유의미한 타자의 지지가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는 Muller(2001)의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다른 사회적 지지가 결핍된 경우 센터교사지지가 그 부분을 보완하고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공동체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는 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란 위기, 삶의 변화, 스트레스 상황 등을 극복하여 정상적 성장과 발달이 지속되도록 하고 불안에 대해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다(Block & Kremen, 1996; Cicchetti & Toth, 2000). 자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불안이나 우울에 덜 취약할 뿐 아니라 현실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고은정, 1996), 외향적이고 성실하고 안정되어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특성을 가진다(구형모, 2000). 고근중(2006)은 빈곤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아탄력 수준이 높은 아동이 낮은 수준의 아동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정 아동과 같이 특수한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게 개인의 내적자원으로서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지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아탄력성이 저소득층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가족, 학교교사, 친구, 센터교사의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센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을 감안하여 센터교사의 지지를 다른 사회적 지지와 비교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교사의 지지가 가족지지와 학교교사 지지를 보완(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즉,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지역아동센터교사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는 가족지지나 학교교사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선행연구

#### 1) 저소득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의 종합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 52조 8항).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로 운영되었던 공부방이 2004년 정부의 공식적인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거듭나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4,03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108,357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가정의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대부분 초등학교생이며 이 시기가 신체, 정서, 인지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소득층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 발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높다(Brooks-Gunn, Kleanov, & Duncan, 1997; Huston, 1991).

선행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인지적인 발달수준이 낮고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 빈곤을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구인회, 2005; 김광혁, 2007). 또한 저소득층 아동들은 빈곤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박탈감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적절한 생활습관을 확립하지 못했거나, 폭력, 공격적 행동,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도벽 등의 문제행동들을 보이는 빈도가 높다(민경화, 2000).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심리나 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직접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 어주경(1999)의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거의 어렵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동들은 부모들을 통해 가정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날 때 아동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신현중, 김희연(2008)은 아동이 가족의 소득보다는 가족의 소비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판단한다고 하였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충족시켜준다고 여길 때, 아동들은 자신의 가정을 빈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광혁(2005)은 절대적 소득수준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주관적 소득수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의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수준은 절대적 경제수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족의 상호작용방식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황혜원(2014)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이웃환경(이웃유대, 이웃문제)은 아동의 가족기능(의사소통 방식)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아동들의 심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속에서 저소득층 부모들을 지역사회와 연계시키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준다. 이런 점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간접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소속감,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김용희, 2009),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혜연, 2005). 유수복, 김현주(2011)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친구관계, 인지활동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었다. 전체적으로 학업이 부진하고 열등감을 보였던 아동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동기, 자신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능력도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박순

정, 2005; 오봉욱, 2005; 이상희, 2007).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용 아동이 어떤 경험을 통해 학교나 일상 생활에 대한 태도나 적응성이 향상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연구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정익중, 허남순, 2006; 박혜영, 2008; 박태정, 박형원, 이희연, 2010),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효과(서유나, 2006; 성동학, 2009; 정은청, 2009),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만족도 및 자존감(문형미, 2008; 김양이, 박미란, 2007; 이훈, 신혜중, 2008), 센터이 용 여부가 학교적응, 학습동기, 자기 효능감 및 사회적응 능력에 미치는 효과(김선미, 2006; 박순정, 2005; 오봉욱, 2005; 유영희, 2002; 이상희, 2007)를 살펴보는 데 머무르고 있다.

## 2) 지역아동센터 내 경험에 대한 연구

예외적으로 몇몇 연구(김연정, 2010; 김용희, 2008; 박복희, 2012; 최은희, 손영빈, 김현주, 2008)는 센터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센터이용 아동들이 가지는 경험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교사와 이용 아동 간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김연정(2010)은 센터교사의 지지적 행동이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와 연결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센터교사가 아동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눈감아 주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해주고,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칭찬해 줄 때, 그리고 작은 것 하나 라도 아동과 약속한대로 이행하며 센터에서 부족한 것들은 외부 자원으로 연결시켜 줄 때, 아동 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들은 센터에 소속감과 신뢰감을 느꼈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정의 편안함과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박복희(2012) 역시 센터교사-아동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아동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센터교사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센터교사가 아동 자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느낄 때, 이러한 유대감은 센터 이용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내 교사-아동의 관계 형성 과정을 연구한 김용희(2008)는 센터 아동과 교사들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의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친구와 선생님 을 만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랐지만 부모나 센터 교사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 이 학교공부를 보충하고 '예의 있는 행동'을 갖추어야 할 장소라고 기대하였다.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센터 교사와 아동들 간의 갈등은 상호작용의 방식에 반영되어 센터 교사와 이용 아동 간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경험을 연구한 최은희, 손영빈, 김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들은 센터교사나 또

래 아동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센터교사의 체벌이나 꾸중, 차별을 경험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생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센터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이 지원적 관계로 발전할 때 아동의 성장이나 적응에 긍정적인 자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생활에서 센터교사 지지의 역할에 주목하여 아동들에게 유의미한 타자인 부모, 친구, 학교교사와의 관계와 비교하여 센터교사와의 지원적 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역할을 더 세밀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 2. 사회적 지지의 역할과 기능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지지와 긍정적 수용을 통해서 아동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획득하게 된다(한종혜, 박성옥, 이영환, 1997; Harter, 1985).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지지, 즉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나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가리킨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인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존중 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긍정적 자기이해 정보를 얻게 된다(Cobb, 1976; Kahn & Antonucci, 1980). 이처럼 아동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읽어낼 수 있다면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원에는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가족, 친구, 교사와 같은 의미있는 타자가 있다(박지원, 1985; 한미현, 유안진, 1996; Furman & Buhrmester, 1985). 사회적 지지원과 아동의 발달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각각의 지지원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나름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는 아동에게 신뢰감과 애정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모와의 유대가 강한 아동은 학교학습에도 흥미를 가지며 경쟁보다는 스스로의 성장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아동기에는 또래와의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과 책임감, 적응 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친구의 지지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였다(한미현, 유안진, 1996; Furman & Buhrmester, 1985; Wentzel, 1998).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아동들에게는 부모 다음으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성인은 교사다. 아동은 교사로부터 학교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학업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배우게 된다. 다른 사회적 지지원과 비교해볼 때, 교사의 지지는 학교학습참여, 교과목이나 수업

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김민성, 신태수, 허유성, 2012; Furman & Buhrmester, 1985; Garcia-Reid, Reid, Peterson, 2005; Wentzel, 1998; 홍복희, 2001). 이처럼 아동의 성장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원인 부모, 친구, 교사가 안정적이며 편안한 분위기와 애정을 제공할 때, 이들의 지지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양돈규, 1998). 뿐만 아니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 학업성취와 같은 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아, 1996).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나 애착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인지적, 행동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지지가 충분치 못할 경우, 또래나 학교교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형성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고선주(2010)는 저소득 아동의 정서·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족지지와 정서·행동 간에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충동적이거나 강박적인 특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비록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정에서의 지지를 충분치 받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존재한다면 아동들의 발달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에 상당 시간을 보내면서 물질적, 정서적, 학업적 지원을 제공받는 대표적인 사회기관이며, 이용 아동들이 느끼는 센터교사의 지지는 아동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를 이용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고려하였거나 다른 사회적 지지원과 비교하여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센터교사지지를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에 포함시켜 이용 아동의 생활적응력인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다른 사회적 지지원(가족, 학교교사, 또래)과 비교해볼 때 센터교사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돌봄과 학업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교사의 지지가 부모나 학교교사지지의 영향력을 보완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3.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가정 및 사회 환경, 아동의 내적 특성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곤을 지속적으



로 경험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특성이 무엇이며 이들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성선진, 2010; 오승환, 2006, 오혜진, 2011). 이전 연구와 달리 저소득층 아동들이 지닐 수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환경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지니고 있다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좁게는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개인의 적응적인 측면이라면, 넓게는 불확실성, 갈등, 변화와 같은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다(Block & Kremen, 1996; Taylor et al., 2013). 최근 학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는 자기조절, 자기통제와 같은 변인들은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행동과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이라면(Rothbart & Bates, 2006), 자아탄력성은 주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역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회복하는 역량을 가리킨다.

자아탄력성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하다는 점에서 단일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을 가진 개인에게는 일관된 공통점이 존재한다(Herrenkohl, 2013). 자아탄력적인 아동일수록 환경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주변의 사회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유연하게 문제해결전략을 활용한다. 그러나 비탄력적인 아동의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위축되고 걱정이 많으며 부정적인 경험에서 회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et al., 2013). 학교생활 측면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성적을 비롯한 학교에서의 수행이 우수하며, 병리적 문제의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대인관계의 측면에서도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구형모, 2000). 결과적으로, 자아탄력적인 개인은 주변 사람들과 지원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들로부터 도움과 조언을 제공받아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자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Herrenkohl, 2011).

유의미한 타자와의 지원적인 관계는 자아탄력성을 지닌 개인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의 역할을 한다. Boxer와 Sloan-Power(2013)는 자아탄력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요인으로, 개인적인 특성(기질, 인지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가족자원(지원적인 양육), 외부자원(또래와 학교에서의 사회적 지지 등)을 들고 있다. 이 중 인지적 기술이나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들은 가족이나 다른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족과 사회에서의 지원적 관계는 자아탄력성 함양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정지영과 임정하(2011)는 청소년의 기질적 특성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가족관계의 건강성,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의 지지 순으로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중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박순주, 심혜원(2012)의 연구는 부모양육태도(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가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탄력성은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탄력적인 적응능력이 학업성취를 위해 자신의 행동과 시간을 관리하고 배움과 성취에 가치를 두는 자기조절학습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을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미화, 2003; 박유미, 2007; 하현주, 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살펴본 박유미(2010)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 중 대인관계의 요소에서만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 지향적이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도록 강화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자아탄력성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냈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삶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다른 내적인 특성보다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중요성이 밝혀진 부모, 학교교사, 또래의 지지와 비교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과 부모와 학교교사 지지의 결핍을 보완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지역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중 15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94명의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이다. 이 중 남자아동은 88명(45.4%)이며 여자아동은 106명(54.6%)으로 나타났고, 3학년 아동이 52명(26.8%), 4학년이 65명(33.5%), 5학년이 38명(19.6%), 6학년이 39명(20.1%)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아동들의 47.9%인 93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인 54명(27.8%)으로, 약 76%의 아동들이 일 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1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실시과정에서 연구자는 각각의 검사지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안내하여 사회적 지지에 대한 반응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표 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일반적 특성

	내용	빈도	%
성별	남자	88	45.4
	여자	106	54.6
	합계	194	100.0
학년	3학년	52	26.8
	4학년	65	33.5
	5학년	38	19.6
	6학년	39	20.1
	합계	194	100.0
기간	1년 미만	47	24.2
	1년 이상 ~ 2년 미만	54	27.8
	2년 이상	93	47.9
	합계	194	100.0
주관적 경제수준	아주 못하는 편	3	1.5
	조금 못하는 편	9	4.6
	보통	114	58.8
	조금 잘 사는 편	36	18.6
	아주 잘 사는 편	32	16.5
	합계	194	100.0

## 2. 연구변인

### 1) 아동의 개인 배경변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아동의 개인변인으로 성별, 학년,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 아동이 지각하는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을 사용하였다. 이들 변인들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다회귀분석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통제변인으로 활용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은 1년 단위로 측정하여,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의 선택지를 제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답하게 하였다. 경제수준은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 즉, 주관적 경제수준이 아동의 심리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강희경, 2005; 김광혁, 2005; 김지영, 2008; 홍경해, 2011)을 고려하여 “나는 우리집이 경제적으로 \_\_\_\_\_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을 제시하여 아동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을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선택지(1=아주 못사는 편, 5=아주 잘사는 편)에 표시하게 하였다.

## 2) 사회적 지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미현(199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는 학교교사지지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를 묻는 문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척도의 신뢰도(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 )는 가족지지 .84, 학교교사지지 .89, 친구지지 .89, 센터교사지지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의 구성

척도	문항수	문항의 예시	신뢰도
가족지지	7	우리 가족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을 많이 주는 것 같다.	.84
사회적 지지	7	우리 학교선생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우리 학교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89
친구지지	7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를 잘 도와주는 것 같다.	.89
센터교사 지지	7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은 나의 강점을 칭찬해 주시는 것 같다.	.93

## 3) 자아탄력성 척도

연구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김수정(2008)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20문항)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5개의 하위척도(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는 자

아탄력성의 하위구성요인보다는 아동의 전반적인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체 척도의 점수를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의 신뢰도는 .8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3> 자아탄력성 측정도구의 구성

	척도	문항수	문항의 예시	신뢰도
자 아 탄 력 성	대인관계	4	나는 친구의 말을 존중해 준다.	.89
	활력성	4	나는 친구들을 보면 먼저 상냥하게 말을 건넨다.	
	감정통제	4	나는 기분이 나쁜 경우에도 바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호기심	4	나는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낙관성	4	나는 시험을 못 보았어도 다음에는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연구대상의 특성과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 개인의 특성변인(성별, 학년, 이용기간, 주관적 경제수준)과 사회적지지(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센터교사지지)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속변인에 해당하는 연구변인의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측정변인이 만족할 만한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leq$ 편포도의 절대치 $\leq .90$ ;  $.07 \leq$ 첨도의 절대치 $\leq .83$ ).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센터교사지지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아동의 개인특성변인을 먼저 회귀분석에 포함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변인을 투입하였다. 개인특성변인을 먼저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것은 성별, 주관적 경제수준, 학년,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과 같은 변인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외부에서 개입하여 변화시키기 힘든, 개인에게 이미 주어진 변인들이기 때문이다. 위계적 회귀방정식을 활용한 연구들은 유전적이거나 개인의 성격적 요소, 변화시키기 힘든 요소를 가장 먼저 방정식에 투입하여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하는 변인의 영향력을 순수하게 살펴보기 위한 통제변인으로 활용한다(예. 허유성, 김민성, 박주성, 2014).

사회적 지지변인의 투입순서는 이미 그 영향력의 유의미성이 알려진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를 먼저 투입하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센터교사지지는 다음 순서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하는 센터교사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

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센터교사지지와 가족지지, 센터교사와 학교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상호작용 변인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위해 상호작용 변인 생성 시 해당 변인들의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단계적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4> 분석모형

모형	투입변인
연구모형1	학생배경 변인[성별, 학년, 기간, 경제]
연구모형2	연구모형1 + 사회적 지지 변인[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연구모형3	연구모형2 + 센터교사지지
연구모형4	연구모형3 + 상호작용변인 [가족지지*센터교사지지, 학교교사지지*센터교사지지]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아동의 개인특성변인의 기술통계치는 '연구대상'을 참조). 아동들이 지각하는 가족지지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03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5점 척도로 측정된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센터교사지지, 자아탄력성은 평균적으로는 '보통' 이상의 평정(3.24~3.59)을 나타내었다.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성별과 센터교사지지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센터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r=.20, p<.01$ ). 주관적 경제수준은 학년과 유의미한 부적상관( $r=-.17, p<.05$ )을, 가족, 학교교사, 친구, 센터교사지지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가족지지  $r=.26, p<.001$ ; 학교교사지지  $r=.19, p<.05$ ; 친구지지  $r=.22, p<.01$ ; 센터교사지지  $r=.15, p<.05$ )을 보였다.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친구지지, 센터교사지지 간의 상호상관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r=.43\sim.56, p<.001$ ).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개인특성 변인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52\sim.60, p<.001$ ).

&lt;표 5&gt;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N=194)

	성별	학년	기간	주관적 경제수준	가족 지지	학교 교사지지	친구 지지	센터교사 지지	자아 탄력성
성별 (남=0, 여=1)	1								
학년	.02	1							
기간	.01	.09	1						
주관적 경제수준	-.14	-.17*	.02	1					
가족지지	.02	.02	.00	.26***	1				
학교교사 지지	.11	.05	.01	.19**	.56***	1			
친구지지	.11	.12	.10	.22**	.43***	.55***	1		
센터교사 지지	.20**	.07	.10	.15*	.45***	.55***	.45***	1	
자아 탄력성	.12	.11	.06	.12	.52***	.55***	.60***	.59***	1
평균 (SD)				3.44 (.88)	4.03 (.80)	3.59 (.82)	3.54 (.81)	3.45 (.92)	3.24 (.73)

\* p&lt;.05, \*\* p&lt;.01, \*\*\* p&lt;.001

## 2) 아동의 개인적 배경변인과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연구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변인만 투입된 연구모형 1에서는 주관적 경제수준만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b=.13, \beta=.04, p<.05$ ). 그러나 연구모형 1 전체는 자아탄력성 변량의 5%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추가된 연구모형 2는 전체적으로 자아탄력성 변량의 48%를 설명하고 있으며, 학교교사지지( $b=.18; \beta=.20, p<.01$ ), 가족지지( $b=.24; \beta=.26, p<.001$ ), 친구지지( $b=.35; \beta=.38, p<.001$ ) 모두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학교교사, 가족, 친구의 지지가 자아탄력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은 43%이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친구지지가 가족지거나 학교교사지지보다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 또래 친구를 통해 아동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lt;표 6&gt;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연구변인의 효과(N=194)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 $\beta$ )	공차	F
		b	S.E.			
연구모형 1	(절편)	2.25	.35			
	성별	.19	.11	.13	.98	
	학년	.09	.05	.13	.97	2.44*
	기간	.04	.04	.01	.99	
	주관적 경제수준	.13*	.06	.04	.95	
연구모형 2	(절편)	.46	.31			
	성별	.05	.08	.04	.95	
	학년	.02	.04	.03	.94	
	기간	.01	.05	.01	.98	
	주관적 경제수준	-.05	.05	-.06	.86	23.83***
	가족지지	.24***	.06	.26	.65	
	학교교사지지	.18**	.06	.20	.57	
연구모형 3	친구지지	.35***	.06	.38	.64	
	(절편)	.44	.29			
	성별	-.01	.08	-.01	.93	
	학년	.02	.04	.03	.94	
	기간	-.01	.05	-.01	.97	
	주관적 경제수준	-.06	.05	-.07	.86	26.21***
	가족지지	.19**	.06	.21	.63	
	학교교사지지	.09	.06	.10	.51	
연구모형 4	친구지지	.30***	.06	.33	.63	
	센터교사지지	.24***	.05	.31	.62	
	(절편)	.43	.28			
	성별	-.02	.08	-.01	.92	
	학년	.02	.04	.04	.93	
	기간	-.01	.05	-.01	.97	
	주관적 경제수준	-.06	.05	-.08	.86	
	가족지지	.21***	.06	.23	.59	21.87***
	학교교사지지	.07	.06	.08	.50	
	친구지지	.29***	.06	.32	.62	
	센터교사지지	.24***	.05	.30	.60	
	가족*센터교사지지	.10*	.05	.13	.60	
	교사*센터교사지지	-.01	.04	-.02	.61	

\* p&lt;.05, \*\* p&lt;.01, \*\*\* p&lt;.001



<표 7> 연구모형 별 설명량 및 유의도(N=194)

모형	R	R 제공	수정된 R 제공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유의확률 F 변화량
					R 제공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1	.22	.05	.03	.72	.049	2.439	4	189	.048
2	.69	.48	.46	.54	.425	50.197	3	186	.000
3	.73	.53	.51	.51	.058	23.036	1	185	.000
4	.74	.55	.52	.50	.013	2.620	2	183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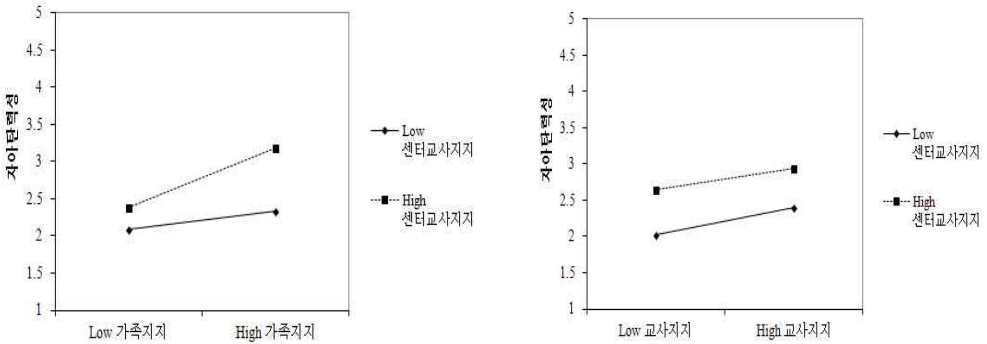
연구모형 3에서는 센터교사지지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센터교사지지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모형은 자아탄력성 변량의 53%를 설명하고 있다. 즉 센터교사지지가 5.8%의 변량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유의미한 타자(가족, 친구, 학교교사, 센터교사)의 지지는 통틀어 자아탄력성 전체변량의 48.3%, 즉, 자아탄력성 변량의 절반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센터교사지지가 연구모형에 추가되었을 때, 센터교사지지( $b=.24$ ;  $\beta=.31$ ,  $p<.001$ )는 친구지지( $b=.30$ ;  $\beta=.33$ ,  $p<.001$ )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지지( $b=.19$ ;  $\beta=.21$ ,  $p<.01$ )의 영향력은 크게 줄었으며, 학교교사지지( $b=.09$ ;  $\beta=.10$ , n.s.)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센터교사가 수행하는 돌봄과 학습지원의 역할이 가족지지와 학교교사지지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모형 4에서는 가족의 돌봄 기능과 학교교사의 학습지도 기능을 둘 다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교사의 지지가 가족지지와 학교교사지지의 영향력을 보완하거나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족지지와 센터교사지지, 학교교사지지와 센터교사지지의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여 센터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센터교사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b=.10$ ;  $\beta=.13$ ,  $p<.05$ ), 센터교사와 학교교사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b=-.01$ ;  $\beta=-.02$ , n.s.). 연구모형 4에서 추가된 설명변량은 1.3%로 유의수준 .05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고, 유의수준 .10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정도에 그쳤다( $p=.076$ )

비록 가족지지에 대한 센터교사의 조절효과의 설명력이 미미하지만,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적 특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라면 그 영향력이 미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Gage, 1978). 센터교사지지의 조절효과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센터교사지지와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를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그림1] 참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의 가족지지가 낮은 경우 센터교사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의 차이보다 아동의 가족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센터교사지지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가 낮은 경우 센터교사의 지지가 이를 보충

하는 역할보다는 가족지지와 센터교사지지가 둘 다 높을 때, 그 영향력이 서로 배가되는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센터교사지지와 학교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회귀분석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학교교사지지의 수준에 따라 센터교사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평행하게 나타나 상호작용 효과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센터교사지지의 조절효과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족, 또래, 학교교사, 지역아동센터교사)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의 돌봄과 학교교사의 학습지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가족지거나 학교교사지지의 효과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15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94명의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 주관적 경제수준)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아동의 개인배경 변인과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배경 변인 중 아동이 지각한 주관적 경제 수준만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행연구(강희경, 2005; 김지영, 2008; 홍경해, 2011)의 결과와 부합하지만, 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 아동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만 이용 아동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대부분은 가족의 경제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연구들(김광혁, 2005; 신현중, 김희연, 2008; 어주경, 1999)에서도 아동들의 60~80% 정도는 가족의 경제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신현중, 김희연(2008)은 초등학생은 가족의 경제수준을 소득수준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대한 부모의 지출이나 부모의 관심에 따라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주경(1999)은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파악하기 때문에 가정의 절대적 경제수준보다 자신의 가정의 형편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아동이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은 곧 아동이 느끼는 가정 내에서의 삶의 질이나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방식과 관련되어 아동이 자신의 삶에 대처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김광혁, 2005). 본 연구에서도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아동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주관적 경제수준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세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생각하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빈곤'이나 '저소득'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절대적 경제수준과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전통적으로 아동에게 유의미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간주되어 왔던, 가족지지, 학교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회적 지지원은 모두 유의미하게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가족, 학교교사, 친구의 지지가 모두 유의하다는 것은 아동을 둘러싼 다각적 지원들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영향은 자아탄력성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와 안녕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희망, 우울증, 학업성취,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를 살펴본 조한익(2011)은 사회적 지지가 희망과 심리적 안녕감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우울증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지만 희망을 높이고 우울증 낮추는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적응능력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사회적 지원 중 친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김현주, 2010; 박유미, 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친구지지의 영향력( $\beta=0.38$ ,  $p<0.001$ )이 가족지지( $\beta=0.26$ ,  $p<0.001$ )나 학교교사지지( $\beta=0.20$ ,  $p<0.001$ )보다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친구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2008)는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부모, 친구, 학교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친구지지와 부모지지는 세 가지 기본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친구지지는 기본욕구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비해 학교교사는 기본 욕구 중 자율성 지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을 6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Furman과 Buhrmester(1985)는 부모-자녀관계에서는 훈육과 애착형성이 주된 역할이라면 친구관계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는 아동의 삶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도구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아동의 적응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이처럼 학교교사에 비해 친구나 부모지지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부각하였다. 이는 부모나 친구지지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과 같은 적응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특히 친구지지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이나 교사와의 관계는 공간적으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인 것에 비해 친구와의 관계는 그 범위나 유형이 보다 다양한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이 속에서의 긍정적인고 부정적인 경험을 겪으며 아동들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서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태도를 기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문제 중 하나인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센터교사지지가 연구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학교교사지지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친구지지( $\beta=.33, p<.001$ ), 센터교사지지( $\beta=.31, p<.001$ ), 가족지지( $\beta=.21, p<.01$ )의 순서대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센터교사가 가족과 학교교사가 수행하는 돌봄과 학업지원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는 점에서 센터교사지지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가족지지와 학교교사지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교사지지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점은 자아탄력성에 대한 센터교사가 역할이 학교교사의 역할과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교사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친구지지를 모형에서 제외하고 상호작용 변인을 구성하는 가족지지, 학교교사지지, 센터교사지지만을 회귀분석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학교교사지지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가족지지  $\beta=.25, p<.001$ ; 학교교사지지  $\beta=.22, p<.001$ ; 센터교사지지  $\beta=.36, p<.001$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자아탄력성에 대한 학교교사지지의 영향력은 친구지지와 센터교사지지의 기능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학교교사, 친구, 센터교사의 지지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센터교사의 지지가 가족지거나 학교교사지지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지지와 학교교사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학교교사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 $\beta=-.02, n.s.$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지지와의 상호작용( $\beta=.13, p<.05$ )

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은 .10수준에서나 유의한 수준으로,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전, 연구자는 학교부적응 아동들에게 교사의 배려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Muller(2001)의 연구에 근거하여, 가족의 지지나 학교교사의 지지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센터교사의 지지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가족지지가 부족한 경우 센터교사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기보다는 가족지지와 센터교사지지가 둘 다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면적인 모형을 형성하게 된다. 인생의 초기에는 부모를 통해, 이후에는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를 둘러싼 타인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게 된다(Davis, 2003).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센터교사지지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효과의 가능성은 지역아동센터와 가족의 지지가 골고루 긍정적일 때 아동의 내적인 자산인 자아탄력성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부모연계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황혜원(2014)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저소득층 가정이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가정 내의 가족의 상호작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이 미처 제공하지 못한 돌봄이나 교육의 혜택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제공해주는 것은 가족 내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다른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영향력의 양상을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아동이 대다수인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친구 지지와 센터교사지지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나 지역아동센터 교사로부터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대인관계능력,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과 관련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발달의 중요한 내적자원을 형성시키는 사회적 자원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초기 연구 중 하나로 센터교사지지의 역할을 양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데 머물렀을 뿐, 그것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지는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아동, 다른 아동들과의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지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역시 하나의 기관으로서 운영주체나 운영방식에 따라 아동들이 경

협하는 교육이나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수준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센터의 운영방식이나 특성에 따라 아동들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고 아동의 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수준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다층자료 분석 방법인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수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저소득층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경험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지원의 차별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을 이해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희경(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 고근중(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고선주(2010). 저소득가정의 환경적 지지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고은정(1996).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구형모(2000). 자아탄력 집단 성격특질.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권지혜(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광혁(2005). 빈곤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0, 109-125.
- 김광혁(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아동학회지**, 28(5), 127-141.
- 김미화(200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김민성, 신태수, 허유성. (2012). 중고등학교 시기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의 중단적 변화가 자기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6(2), 429-459.
- 김선미(200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수정(2008).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김양이·박미란 (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61-89.
- 김연정(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변화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김용희(2009).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문화적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김지영(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대처양식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현주(2010). 사회적 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2), 211-233

- 문형미(2008).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동, 보호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민경화(2000).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과 일반 빈곤지역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 박복희(2012). 지역아동센터 교육환경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박순정(2005).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기효능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 박순주·심혜원(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2), 113-135
- 박유미(2010). 저소득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태정·박형원·이희연(2010).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75-109.
- 박혜신(2003). 빈곤가족과 빈곤문화: 빈곤가족의 가족사와 빈곤가족아동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박혜영(2008).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서유나(2006).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우암논총**, 28, 127-145.
- 성동학(2009). 지역아동센터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원광대학교 대학원논문집**, 42, 227-246.
- 성선진(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신현중, 김희연(2008). 수도권 빈곤 아동가구 특성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2008). 자율성 지지, 기본적 욕구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5), 315-338.
- 양돈규(1998).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어주경(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오봉욱(2005).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경험이 농촌지역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오승환(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적응유연성 요인의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21, 181-206.
- 오혜진(2011).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



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유수복, 김현주(2011). 학교적응유연성 유형에 따른 이용 아동의 세분화(동질적)집단 특성 연구 :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4), 109-130.
- 유영희(2002). 빈곤지역 공부방 활성화 방안: 성남 구시가지 민간공부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이상희(2007). 지역아동센터 경험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이훈, 신혜중(2008).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홍성군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163-188.
- 전혜연(2005).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정은청(2009). 만화기법을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정서장애아동의 대인관계향상과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1), 39-61.
- 정의중, 허남순(2006). 지역아동센터 운영성과 분석에 따른 운영모델 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부스리기사랑나눔회.
- 정지영, 임정하(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3(1), 37-51.
- 조한익(2011).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희망, 우울증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5(1), 153-174.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3).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통권 13-012호 연구자료.
- 최은희, 손영빈, 김현주(200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12(2), 135-159.
- 최진아(1996).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적응능력.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하정민(2006). 빈곤아동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하현주(2007).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종혜, 박성옥, 이영환(1997).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가치감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6(1), 15-27.
- 허유성, 김민성, 박주성. (2014). 중학교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수준과 학교환경변인의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6(4), 215-242.

- 홍경혜(2011).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완충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홍복희(2001).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황혜원(2014). 이웃환경특성이 저소득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정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4), 121-142.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8-361.
- Boxer, P., & Sloan-Power, E. (2013). Coping With Violence A Comprehensive Framework and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Resilience. *Trauma, Violence, & Abuse*, 14(3), 209-221.
- Brooks-Gunn, J., Kleanov, & Duncan, G.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 55-71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metric Medicine*, 38, 300-314.
- Cicchetti, D., & Toth, S, L. (2000). Social policy implications of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Special Issu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551-885
- Davis, H. A. (2003). Conceptualizing the role and influence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8(4), 207-234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 Psychology*, 21(6), 1024-1061.
- Gage, N. (1978). *The scientific basis of the art of teaching*. Oxford: Teachers College Press.
- Garcia-Reid, P., Reid, R. J., & Peterson, N. A. (2005). School engagement among Latino youth in an urban middle school context valu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Education and Urban Society*, 37(3), 257-275.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Herrenkohl, T. I. (2011). Resilience and protection from violence exposure in children: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with vulnerable populations. In T. I. Herrenkohl, E. Aisenberg, J. H. Williams, & J. M. Jenson (Eds.), *Violence in context: Current evidence on risk, protection, and prevention* (pp. 92--10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errenkohl, T. I. (2013). Person-environment interactions and the shaping of resilience. *Trauma, Violence, & Abuse*, 14(3), 191-194.
- Huston, A. C. (1991). *Children in pov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 social support. In P. B. Baltes & O. Brim(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pp.253-286). New York: Academic Press.
- Karademas, E. C. (2006) .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optim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6), 1281-1290.
- Lynch, M., & Cicchetti, D. (1997).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81-99.
- Muller, C. (2001). The role of caring in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for at-risk students. *Sociological Inquiry, 71*(2), 241-255.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R.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New York: Wiley.
- Taylor, Z. E., Eisenberg, N., Spinrad, T. L., Eggum, N. D., & Sulik, M. J. (2013). The relations of ego-resiliency and emotion socialization to the development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across early childhood. *Emotion, 13*(5), 822.

\* 논문접수 2015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5년 3월 6일 / 2차 심사 2015년 5월 1일 / 게재승인 2015년 6월 9일

\* 김민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텍사스대학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minseong@chosun.ac.kr

\* 박신희: 조선대학교에서 교육심리전공 박사과정을 수료 하였으며, 현재 조선간호대학 겸임교수와 조선대학 강의교수, 새봄심리상담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joy7282@naver.com

## Abstract

##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Ego-resilience in Child Community Centers: Focusing on the Relative and Moderating Effect of Child Community Center Teacher's Support\*

Kim, Minseong\*\*

Park, Shin-Hee\*\*\*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family, school teacher, peer, and teacher of community child center) on children's ego-resilience in community child centers,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lative and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child center teacher's support by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From 15 different community child centers, 194 children in 3rd-6th grad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economic status perceived by children among background variables ha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ego-resilience at the first step of regression analyses. At the second step with three social support variables(family, school teacher, and peer) included in the regression model, all the support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ego-resilience of children. When community child center teacher's support was analyzed in the third and fourth regression models, its significant effect on ego-resilience as well as moderating effect with family support was found. This finding signifies the important role of center teacher's support in forming children's resilient attitude. Interestingly, its impact strengthened when family support was high, confirming the significance of the consistent support from in and out of family. A few suggestions were made about the future research on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Key words: Social Support, Child Community Center, Ego-resilience, Moderating effect

---

\* This study was revised based on the work presented in the 4th conference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in 2013.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in Chosu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Candidate in Chosun University